

‘젤스페이스’ 소재 특허… 글로벌 명품침대 브랜드 정면대결

메트로가 만난 기업인

강 헌 구 렉스필 대표

강 대표, ‘가장 편안한 침대’ 도전
수 년간 연구 끝에 젤스페이스 개발
국내 주요 호텔·리조트에 제품 납품

경기 양주 만송동에 위치한 렉스필 본사가 있는 1층 매장은 3억5000만 원 짜리 침대가 있다. 제품명이 ‘알렉산더 프리미엄 시그니처’다. 눈을 찔고봐도 가격은 그대로다. 프레임까지 포함한 것으로 국내에선 최고가다.

렉스필이 선보인 고가 침대는 세계 4대 명품 침대브랜드인 스웨덴의 해스텐스, 텍시야나 그리고 영국 바이스프링, 히프 노스가 경쟁상대다. 해스텐스는 12억 원 짜리 침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람의 숙면을 돕는데 침대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명품 침대를 반드시 만들어보아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핵심 소재는 실리콘과 유사한 ‘젤스페이스’다. 핵심 인재를 영입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고려대와 수 년간 연구 끝에 소재를 개발하고 특



강헌구 렉스필 대표가 경기 양주에 있는 본사 매장에서 침대에 앉아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허도 냈다.

젤스페이스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신체에 가장 적합한 경도와 성분으로 이뤄져 있다. 압점이 ‘제로(O)’여서 어떤 방향으로 누워도 배기질 않는다. 게다가 숙면을 위해 체온도 빠르게 분산시켜 자는 시간에 최적의 온도를 유지해준다. 통기성도 좋다. 특허받은 우리만의 레이어링(Layering) 기술도 적용했다. 현존하는 침대 중 가장 허리에 좋은 침대, 편안한 침대라고 자부한다.

특히 젤스페이스는 25년간 품질을 보증한다.”

매장 2층에 있는 본사 사장실에서 강헌구 대표가 자신을 ‘수면관리사’라고 소개하며 설명을 이어갔다.

“프레임과 침대에 쓰인 가죽은 명품백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이태리 F펠라미의 최상급 소가죽이다. 침대 하나에 명품백이 20~30개 정도 들어갔다고 보면 된다(웃음). 반짝이는 것들은 체코산 인조다이아몬드들이다. 프레임

에 이름도 새길 수 있다. 모두 핸드메이드로 제작하기 때문에 고객이 주문하면 약 10주 후에 제품을 받으실 수 있다.”

렉스필은 얼마전엔 현대백화점 압구정점에서 팝업스토어를 열고 소위 ‘강남부자’들을 추가 공략하기도 했다. 서울 강남의 고급피부과, 줄기세포병원, 고가 산후조리원과도 다양한 컬래버레이션을 펼치고 있다.

중소기업으로선 이례적으로 후원하는 KPGA, KLPGA 골프선수만 27명에 달한다. ‘명품’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다. 향후엔 연예인 마케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그렇다고 렉스필이 만드는 침대가 1억 원이 넘는 고가 라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 소비자를 겨냥한 300만원, 600만원대 제품도 있다.

강대표는 렉스필의 전신인 에이스사를 1997년 창업했다.

“다녔던 회사가 IMF로 문을 닫았다. 회사에 남은 양모이불을 퇴직금으로 대신 받았다. 그것들을 시장과 지인들에게 팔고다녔다. 다시 회사에 들어갈지, 창업을 할지 고민하다 아예 집에서 창업을 했다. 그러다 서울 동대문종합시장 인근의 5층 옥탑방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겨울에 키보드를 두

드리다 손이 시려워 녹이던 석유스토브가 바로 이것이다. 배고팠던 시절을 기억하고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버리지 않고 있다.” 실제 사장실 한쪽엔 골동품처럼 보이는 스토브가 유물처럼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은 점점 변창해 회사는 국내의 내노라하는 호텔, 리조트에 매트리스, 침구류와 린넨류 등을 납품했다. 신라호텔, 그랜드 워커힌 호텔, 웨스틴 조선 호텔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 소노호텔 앤 리조트,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등이 모두 렉스필의 고객들이다.

국내 유명 침대 브랜드에 침구류도 공급했다. 2020년엔 매트리스 연구를 위해 ‘수면과학연구소’를 설립했다. 지금의 렉스필로는 2022년에 간판을 바꿔 달았다. 아홉했던 코로나 팬데믹 시절엔 원단 분야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활용해 패션 향균 마스크를 만들어 난국을 헤쳐나가기도 했다. 덕분에 직원들을 한명도 내보내지 않고 모두 품에 안을 수 있었다.

“사람들이 모두 1억 원 넘는 침대를 어떻게 팔까 고민해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는다’가 내 신조다. 노력하고 방법을 찾으면 길이 꼭 있더라.”

/양주(경기)=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기중앙회, 중기공제기금 대출금리 인하

단기운영자금대출 年 4%~8.69%
중기·소상공인 금융활용 여건 개선

중소기업중앙회가 7월1일부터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금리를 최대 0.3%포인트(p) 내린다.

중기중앙회는 경기 둔화와 자금시장 위축 등 최근 금융여건 변화에 대응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낮추고 금융활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금리를 하향 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단기운영자금대출은 연 4.00~8.69% ▲어음·수표대출은 연 4.00~7.42% ▲부동산담보대출은 4.25%로 각각 낮아진다. 내수부진 등으로 특히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노란우산연계대출’은 0.30%p 인하해 5.20%의 금리를 적용한다.

대출이자율의 1~2%p를 지원하는 지자체 이차보전 제도와 연계하면 실질 적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용 금리는 더욱 낮아져 자금조달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제부금(3년~5년)의 만기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시중금리 인하에 맞춰 연 3.25%에서 3.0%로 0.25%p 조정 시행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 도입한 제도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납부한 부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된 자금

을 재원으로 부도매출채권대출, 어음·수표대출, 운영자금대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가입자는 신용등급에 따라 부금잔액의 최대 3배까지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대출한도 부족 시에는 최대 10배까지 부동산 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에 3년 이상 가입한 소상공인이라면 공제기금에 가입 후 부금잔액의 최대 10배까지(2000만 원 한도) 소상공인 노란우산연계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전국 약 1만7000여 개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가입 중이며, 지난해 1년 동안 약 6900억원의 대출을 지원했다.

공제기금 가입 및 대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기중앙회 고객센터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포스코, 중소기업 상생경영 성과 ‘혁혁’

동반성장지원단, 현장중심 과제 수행

포스코는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부진, 보호무역 정책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이 곧 대한민국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다는 경영이념을 이어가기 위함이다.

포스코는 전문가들이 중소기업의 고충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동반성장지원단’,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생산공정을 지능화하는 ‘Smart화 역량강화’,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고 성과를 나누는 ‘성과공유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올해 출범 5년차를 맞이하는 ‘동반성장지원단’은 각 분야에서 평균 25년 이상 근무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포스코



MES시스템이 적용된 키오스크를 활용하여 생산설비를 제어하는 모습 /포스코

직원들로 구성된 중소기업 지원 전문 조직이다.

지원단은 ▲ESG 현안 해결 ▲스마트공장 구축 ▲설비·공정 개선 ▲품질·기술 혁신 등 총 4개 분야에서 실질적인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4년간 100여개사가 참여해 개선과제를 수행했으며, 점차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엔젤투자협회, 공직유관단체 신규 지정

조민식 회장 “국가 경제발전 기여”

한국엔젤투자협회가 내달부터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며,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엔젤투자협회는 2025년 하반기부터 엔젤협회가 신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 고시된다고 30일 밝혔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엔젤협회는 2012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개인투자조합 등록과 투자확인서 발급, 지역 엔젤투자허브 조성 등 민간 주도의 투자 활성화를 지원해 왔다.

중기부는 엔젤협회의 주요 업무가 정부 위탁사업을 기반으로 공공성과 책임성을 요구받는 만큼, 공직유관단체 지

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4월 인사혁신처에 지정을 신청 및 확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엔젤협회는 중기부 감사규정에 따른 자체감사 대상이 되며, 임직원은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는다.

조민식 엔젤협회 회장(사진)은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계기로 투자자와 창업기업 모두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겠다”며 “엔젤투자 생태계를 선도하고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대표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최빛나 기자 vitna@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 공모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병행

중소벤처기업부가 비수도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6년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과제 공모에 착수했다.

중기부는 30일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6년도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후보과제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전략산업과 혁

신사업의 육성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규제 특례를 부여, 신기술·신산업 실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국내 규제 여건이나 인프라 한계로 국내 실증이 어려운 기술에 대해서는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도 병행한다.

중기부는 이번 공모에서 기술준비수준(TRL)이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실증 종료 후 바로 시장에 출시 가능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최빛나 기자